

“코로나19,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요”

구세군나성교회, 제 3차 코로나 극복 위한 사랑 나누기 실시

지난 11일 구세군나성교회(이주철 사관)는 “제3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 나누기”를 실시하고 LA 코리아타운 한인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쌀과 함께 마스크, 손세정제 등 코로나 방역 용품을 전달했다. 양 손 가득 선물을 받아든 이웃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게 경제를 반영하듯 교회 문을 열기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으며, 1시간이 조금 넘자 준비한 쌀 200포대가 모두 소진됐다. 교회는 쌀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우처를 나눠주며 한 주 후에 쌀을 받을 거라 약속했다.

이주철 사관은 “예전에는 생활필수품을 나눠드려도 한인분들은 잘 오시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

에는 3-4시간 전부터 줄을 서신다”며 “어느 때보다 한인 가정어렵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전했다.

이 사관은 “LA에 1300여 한인교회가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힘을 모으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매년 자선냄비를 통해 들어오는 기부금은 100% 사회로 환원하고 있으며, 성도들의 헌금과 외부 기부금, 구세군 본부에서 지원되는 사회 사업비로 우리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는 코비드라는 특별한 케이스로 인해 더 많은 것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제 3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 나누기를 마친 구세군나성교회 사관들과 봉사자들 ©기독일보

한편 구세군나성교회는 한인교회이지만 사역 범위는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모두 포함

하며, 인근 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라티노와 흑인을 비롯해 한인교인 등 교회에 등록된 저소득

층 수 천 가구에 매달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회장 장경일 목사 코로나19로 별세



사우스베이 목사회 회장, 원 패밀리처치 담임 장경일 목사

목사가 지난 11일 오전 3시, 코로나19로 세인트 존스 병원에서 소천했다. 향년 53세.

고 장경일 목사는 2주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었으며, 위독한 가운데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변 의료진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장경일 목사는 2008년 3월, 원패밀리처치를 창립해 남가주 지역 한인들과 영어권 2세들을 대상으로 온 가족의 영혼 구원, 다음 세대에 신앙 전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통해 지역 사

회를 아름답게 섬김, 온 가족의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왔다. 특히 제자훈련과 교육에 힘쓰며 한인 2세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노력했었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증경회장 김현수 목사는 “장경일 목사님은 개교회 성장보다 지역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연합을 위해 누구보다 애를 쓰셨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었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고 장경일 목사는 UC얼바인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뒤늦게 목회를 시작했다. 원패밀리처치를

개척하기 전에는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으며, 척 스미스 목사가 개척한 갈보리채플에서 한인 담당 부목사로 사역했었다.

갈보리채플과의 인연으로 그의 투병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갈보리채플에서 고인을 위해 기도했으며, 갈보리채플 의료진들도 고인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유가족으로는 리사 장 사모와 두 아들이 있으며, 천국환송예배는 2월 20일(토) 원패밀리처치(19208 Vermont Ave, Gardena, CA 90248) 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사우스베이한인목사회 회장이자 원패밀리처치를 담임하는 장경일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교정,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rit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여의도순복음교회 위임목사
이영훈, Ph.D.
 ITS신학대학원은 예수님을 모른채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전 미국, 나아가 세계를 복음화 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총장 이승현 (James Lee), Ph.D.
 1982년 개교한 ITS 신학대학원은 탁월한 교수진과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으며 2006년 이래 미국의 우수한 연방인가 기관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정회원입니다. 미국 ITS가 제공하는 깊이 있는 강의와 실질적인 훈련들을 한국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ITS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562-741-8465
 admin.kor@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2021년 봄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온라인수업제공/유학생 1-20 발급 입학생 전원 장학혜택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 모집 학위과정 및 지원자격

학위과정	지원자격
MATS (신학 석사) M.Div (목회학 석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D.Min (목회학 박사)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졸업자 교육부 인가 M.Div 학위 혹은 동등 학위 졸업자

■ 장학금
 2021년 봄학기 전 입학자 (25%) 장학금 혜택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2021년 2월 15일(월) ~ 3월 5일(금)
합격자 발표	2021년 3월 12일(금)

■ 입학 전형료 및 수업료

학위과정	입학 전형료	학점당 수업료
MATS (82학점)	USD 50	USD 250
M.Div (126학점)	USD 50	USD 250
D.Min (55학점)	USD 100	USD 350

■ 봄학기 일정 (10주)
 2021년 4월 5일 ~ 6월 11일

■ 입학문의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562-741-8465 / admin.kor@itsla.edu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 (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은 한국어 프로그램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전 세계 한인 기독교 콘텐츠 라이브러리 “풍당” 출시

미주 CGNTV, 맞춤형 기독교 OTT ‘풍당’ 설명회 개최

미주 CGNTV는 맞춤형 기독교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풍당’ 설명회를 갖고, 애플리케이션 제작 동기와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풍당 활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미주에서 사역하는 교회 목회자 및 사역자 70여 명이 참석해 기독교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풍당 앱은 2월 15일 정식 오픈 한다.

풍당은 CGNTV의 영상과 각 미디어 단체, 기관들에서 제작한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사용자가 편리하게 크리스천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하는 기독교 OTT 서비스 성격의 앱이다.

특히 풍당은 개인 맞춤 추천신앙 성장영역 점검지를 통해 파악된 사용자의 성향과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춰 AI가 콘텐츠를 큐레이션 해주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이를 통해 교회 양육 커리큘럼 및 학적 관리를 제공하며, 교회 별 커리큘럼을 직접 구성해 맞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2일 열린 강연회가 1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또한 각 교회 별로 자체 영상 업로드 섹션을 제공해 교회 성도들 안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 등록이 가능하며, 일정 절차에 따라 예배 라이브 방송도 지원한다.

풍당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플랫폼과 유사한 특성을 가졌지만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영상만

을 추천해 확장편향을 부추기지 않도록 설계했다. 시청자가 보고 싶은 것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성숙도에 따라 반드시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하는 영상을 추천해 신앙적 균형 형성을 돕게 된다.

미주 CGNTV 강일하 목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목회 환경에서 ‘풍

당’은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성도들의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을 위한 순수 복음 콘텐츠만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 목사는 “과거에는 맞춤형 추천이 불가능했지만 AI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에 적합한 콘텐츠를 연결해 줄 수

있게 됐다”며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 시대에 성도들이 안전하게 양육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풍당’(Fondant)은 프랑스로 ‘흘러 넘치다, 빠져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물의 파장을 가리키는 우리말 ‘풍당’과 어울려 온 세상으로 복음을 흘러 보내는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풍당에서 제공하는 기독교 콘텐츠 중 기독교영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사람 그 사람 그 세상>, <일사각오> 등 복음을 담은 기독교 영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숏폼 콘텐츠의 형태로 <딸에게 들려주는 조직신학>, <예수동행일기>, <주님은 나의 최고봉> 등이 있다.

새신자반, 성숙자반의 구분뿐만 아니라 가정, 말씀, 세계관, 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맞춤형 양육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한 영역의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자녀들을 위한 콘텐츠로는 <히즈 쇼>, <큐리랜트TV>, <바이블 맨> 등이 있다. 교회와 선교 단체, 유명 미니스트리의 콘텐츠로는, <위러브 미니스트리> 등을 제공하게 된다. 김동욱 기자

“미주복음방송, 은혜로 30년, 빛으로 30년”

개국 30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마련

지난 30년간 남가주 지역 교회와 교계를 섬기며, 지역사회 이민자들의 교량과 중심점 역할을 해 온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이 올해로 개국 30년을 맞았다.

미주복음방송은 1990년 임종희 목사에 의해 설립 돼, 남가주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성장했다. 낯선 땅에 이민 온 이민자들에게 미주복음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국어로 된 설교와 찬양은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미주복음방송은 개국 30주년을 맞아 올 한 해 여러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3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개국 30주년 감사 예배”를 진행한다. 감사예배에는 설립자 임종희 목사와 역대 이사장들과 사장들, 그리고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주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

또 오는 7월 17일(토) 저녁 7시에는 LA 월드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한국 내 유명 국악인과 미국 내 유명 관현악단의 콜라보 공연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회복과 단합을 위한 “This is Korea 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침체된 한인 CCM계의 부흥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예선 및 결선을 거쳐 10월 말경에서 11월

초순, “제 10회 복음성가 경연대회”와 “CCM 찬양제”를 남가주지역 대형 교회에서 진행한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커뮤니티 이웃들을 위해 ‘나눔 ON(은) 캠페인’을 작년에 이어 올 한해 도 특별생방송을 포함하여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 한인 노인들과 설 기쁨 나눠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 정문섭 이사장과 GCOOP USA Corp 김지숙 대표가 한인 노인들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 이하 시니어 센터)는 지난 11일 설을 맞아 GCOOP USA Corp. 미주본부(대표 김지숙)와 함께, 코리아타운 내 노인 아파트 6곳을 찾아 떡과 잡채, 생선전이 담긴 설 잔치 도시락 300개를 전달했다.

김지숙 총괄대표는 “팬데믹으로 설에 자식들을 만나지 못하고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작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어려운 때이지만 지혜롭게 극복하고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비영리단체등록
- 특허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www.marhlaw.com

辯護
변호

의뢰인의 원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변호의 핵심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고 있습니다. 참된 변호란 의뢰인의 처한 상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은 때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해상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근절되어야 합니다.

實力
실력

마변호사그룹의 오랜 경험이 물론 실력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 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되는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혜롭고 때론 창의력을 갖춘 것이 마변호사그룹의 진정한 실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력은 의뢰인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무기입니다.

精誠
정성

가장 큰 정성은 의뢰인의 문제를 내 입처럼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은 모든 일을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과 오랜기간 귀한 관계를 이어온 것도, 정성 어린 마음의 결과라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責任
책임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별한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대화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전화, 이메일, 미팅을 통해 언제든지 마변호사그룹은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信賴
신뢰

변호사의 진정한 기쁨과 긍지는 의뢰인으로부터 얻는 신뢰일 것입니다. 한분 한분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기에 신뢰는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믿겨러이요 최종 목표입니다. 진정한 신뢰 없이 진본이 없는 것 같고 있습니다.

마동환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이민법

낯선 땅에서 안정된 신분과 안정된 삶의 정착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변호사그룹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심분 새겨서 가족의 일과 같이 모든 신분변경 및 이민케이스를 꼼꼼함과, 정성과, 넓은 시야를 갖고 대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뢰인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린 것이 저희 마변호사그룹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상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 (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기간 그 실력을 인정 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분분의 법적문제에 의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와지는 평안을 체현하십시오.

그 여는 분야 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 합니다. 지피지기가 이루어 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 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꼭 변호사와 하십시오!
 모든 상담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무료상담 / 이메일 예약 환영

Attorneys
 David Marh
 Simon Langer
 Frederick Alschuler
 Gordon Turner
 Nicholas Valmes
 Walter Roberts
 Douglas Villinger

tel. 213.487.9190 fax. 213.487.9484 email. marhlaw@yahoo.com 3325 Wilshire Blvd., Suite 1350, Los Angeles, CA 90010



매년 수많은 유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되는 UW 스포츠 멀티 프로그램 사역

오석재 선교사, 미국 스포츠 선교를 배우다(3)

본지는 1970-80년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다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석재 선교사님의 신앙과 삶을 4회에 걸쳐 나눕니다. 오 선교사님은 1978년 축구 인생의 절정에서 위기를 맞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1980년대 할렐루야 축구단에서 축구를 통한 선교 활동을 펼쳤고 1989년 은퇴와 함께 예정고신의 선교사로 인도네시아에 파송됐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미국 등지에서 목회와 축구 선교를 병행했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유소년 축구팀을 양성하며 한국 축구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은퇴 후 인도네시아의 조그만 마을에서 선교활동을 했는데 30년 전 만해도 스포츠(Sports)라는 도구를 매개로 선교를 하고 싶어도 스포츠 선교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어려웠다. 스포츠 선교에 관한 실제적인 이론과 방법, 훈련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찾아서 배워야겠다는 강한 열망의 마음이 일었다.

마음의 소원을 이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1998년, 스포츠 사역으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 UW(Uncarted Waters 미지의 물결)의 대표인 '팀 콘라드'(Tim Conrad)씨의 초청으로 UW의 본부가 있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됐다. 그곳에서 미주 고신 선교사 협력 사역자로 파송 받아 아시아 책임 사역 담당자로 2기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UW 선교부의 스포츠 사역은 국내 사역과 국제 사역 그리고 저소득층 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국내 사역은 매년 여름방학 기간, 약 3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1년 동안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또 헌신된 스포츠인들을 모집하여 한주간 집중 훈련을 한다. 정해진 사역 프로그램에 따라 약 3개월 동안 미국 내 사역지로 파송하여 멀티 스포츠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복음을 전한다.

이 스포츠 프로그램의 일정은 1일 스포츠 클리닉, 3일 스포츠 클리닉, 5일 스포츠 캠프로 하루에 총 4시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지도 내용은 양질의 운동 배우고, 찬양을 함께 배우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교재를 통하여 배우고 듣고,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여 복음을 배운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컴패션(Compassion) 캠프 사역을 실시하여 저소득층 지역사회 유소년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사역도 행해진다.

UW 스포츠 멀티 프로그램 사역을 통해 매년 약 3천에서 4천 여명의 유소년들을 만나고 복음을 나누면 약 10%~15% 유소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인도됐다. 나

는 이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 선교 사역자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또 스포츠 캠프에 참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미국 사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참가하는데, 스포츠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 사역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에 참석해 선교하는 방식이다. 국제경기가 벌어지는 도시에서 지역교회를 통해 선수들을 만나고 전도지를 나누며 간증하는 사역이다. 스포츠는 인종, 국경, 이념 사상, 종교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관계를 가질 시 매우 좋은 관계 전도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젊은 시절부터 환갑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스포츠를 통한 전도 사역을 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마음이 든



유소년 축구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오석재 선교사

다면 본국 한국교회나 이민 교회들이 스포츠를 통한 전도, 선교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의 시대는 선교의 다양화가 대세를 이루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선교하는 전문인 선교사대이기에 교회가 보다 열린 마음으로 스포츠 선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1:12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증거했고,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음에도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방도로 하던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라고 말했다. 이처럼 스포츠가 교회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교와 전도를 위한 하나의 방편 도구와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스포츠 라는 도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마지막 시대적인 요구임을 다시 한번 외쳐 보고 싶다.(계속)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로 의면하지 않았다

Righteous Outlaw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현목사(예수전도단), 주선애교수(정신대 영예교수), 이종희교수(예수대대표), 송정원목사(복음번안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유일대대표), 신영민목사(복음번안대 대표), 유관지목사(동일대대표), 김인식목사(KCC공동대표)

* 영의 책은 아예 연락처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원 목사 책의 편집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로 의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건부 출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종언으로 지역에서 찬가로 울려지는 기록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겐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서회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려받으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94

강태광목사의 인문학 강의 19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믿으며 하는 이슬람권 선교운동(3)”

지난주 필자의 칼럼을 읽고 한 독자가 전화를 했다. “목사님! 정말 터키가 선교에 있어 안전한 나라입니까? 정말 아랍의 나라들이 개신교 선교를 향해 문이 열려 있습니까?” 의아해하며 물었다.

지난주에 언급한 대로 터키 안에는 이미 수많은 아랍권 및 유럽 나라들의 민족이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나 터키 전 지역에 퍼져 살고 있다. 그 난민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활짝 열려 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믿던 이슬람 종교에 큰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슬람 지도자들의 거짓과 부패들을 직접 경험하였고 그런 이슬람교가 미래의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없음을 깨닫는 난민들이 많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런 그들이 자기 거주지 주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이미 터키 안에 있던 이란계 교회들로 난민들이 모인다. 대도시에는 터키인들의 교회가 곳곳에 있다. 그 교회들로 난민들이 모이고 있다.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하면 그들에게 선교 비전을 바로 제시한다. 사실 그것이 더 성경적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예수를 영접하면 먼저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봉사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갖추어진 후에 선교를 해야 하지 않냐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가서 전하라 하셨다. 제자들에게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성경은 머물러 공부한 후에 가라 하지 않는다.

필자는 목회하던 교회에서 3가정의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들의 사역지를 방문하면서 중국교회(가정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것을 몇 차례 보았다. 그들은 세례를 받으면 곧바로 선교사 파송을 한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적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맘 속



이상훈 목사
멕시코장로회신학대학장

깊이 믿고 깨달은 자는 머뭇거리질 수 없다. 그 받은 구원의 복음을 가장 뜨거운 마음일 때 전해야 한다. 한 가지 전제는 성령이 내주 하셔서 진정으로 구원을 깨달은 자에게 해당된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특히 이슬람권 지역에서의 선교는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이다. 무슬림 영혼들이 전도자를 만나 복음을 직접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게 찾아 전해 준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수가 지난 20년간 팔백만 명이 넘는다. 이 통계는 이집트 카이로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방송에서 집계한 자료다. 단기선교를 무시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흑시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고 하는 성도가 선교지에 가는 것을 경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동행 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에 잡힌 전문 선교 인도자들이 그들을 바른 선교의 길로 잘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성도가 선교 현장에서 영성과 인성이 바뀐다. 진정 거듭나게 된다.

필자는 25년의 목회 경험으로 교회의 선교가 속히 다시 일어 서기를 기도한다. 팬더믹 핑계를 대지 않기를 바란다. 영적 파도타기를 할 때이다. 하나님의 선교이므로 하나님께 길을 알려 주십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을 오늘도 제시해 주신다. 그렇게 미주에만 200여 명의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지금도 선교지를 밟고 있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기쁘게 보고 계속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인문학으로 읽은 바울의 생애 ⑤ “숨겨진 세월”

열성 유대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추종자들이 자신이 신봉하던 유대교를 훼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핍박을 했고, 다메섹에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잠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십 수 년을 아라비아 사막과 다소에서 보냅니다.

갈1:17-18에서 바울은 회심 후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라고 설명합니다. 더글라스 레드포드는 바울의 회심은 AD 34년이고 그가 아라비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방문한 때는 AD37년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 후 약 10년 다소에 머뭅니다.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없습니다. 이 세월을 바울의 숨겨진 세월(Hidden Time) 혹은 잃은 시간(Missing Time)이라고 합니다.

회심 후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사도행전9:26-30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로부터 환영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의심받고 살해위협까지 받고 급히 피신합니다. 행9:30은 “형제들이...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고 설명합니다. 이 후 A.D. 46년,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교회 동사 목사로 갈 때까지(행11:25) 약 10년간 다소(행22:3)에 머물렀다는 대부분의 신약 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 기간에 대한 입장이 근소하게 다른 학자도 있습니다. F.F. 브루스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약3년을 보낸 다음(갈1:17), 예루살렘을 거쳐 그의 고향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보냈던 기간을 11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반면에 폴 태너(Paul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Tanner)박사는 바울의 “길리기아와 수리아”에서 보낸 기간을 대략 6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바울은 “담대하게(παρρησια)”(행9:27, 29)간증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복음전과 장면을 설명할 때 “담대히”(4:19,4:29,4:31,13:46,14:3,18:26,19:8)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아니라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증거 했습니다.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13:46), 이고니온(14:3), 고린도(18:26), 그리고 에베소(19:8)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직후처럼 바울은 사역 내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바울이 보낸 세월은 그를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바울에게서 감추어진 세월(Hidden Times)은 그의 다메섹도상 체험만큼 중요합니다.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보낸 세월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신학과 소명을 다듬었습니다. 그 후 안디옥 교회 사역과 선교 현장에서 바울의 모습은 확신에 차 있었고, 바울의 신학은 더 세련되고 성숙해졌습니다.

바울 머물렀던 ‘아라비아사막’은 당시 나바테아 왕국이 지배했습니다. 고후11:32에서 다메섹에서 ‘아레타(Aretas)’ 왕의 고관이 자신을 잡으려 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아레타 왕’이 나바테아 왕국 ‘아레타스 4세’입니다. 나바테아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북동부에서 유프라테스 강 유역과 시리아의 다메섹 지역을 포함하는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주후 105년 로마의 트라야누스 황제가 나바테

아 왕국을 로마제국에 편입시키기까지 나바테아는 로마의 인접왕국으로 존재했습니다.

바울의 숨은 시간(hidden time)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 합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이 시간 바울의 행적에 대해 대략 4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입장은 바울은 아마도 이 곳에서 ‘갈라디아서’ 등에서 드러난 ‘이신칭의’ 교리를 정교화 했을 것으로 봅니다. 둘째 입장은 바울이 이 기간 중에 아라비아에 교회를 개척했고, 다소에서 사역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셋째 입장은 바울이 장래 선교활동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넷째는 바울이 이 기간 대부분의 시간을 실제로는 다메섹 전도에 매진했고 아라비아와 다소에는 단지 잠시 내려갔었다는 견해입니다.

바울의 숨은 기간에 대한 성경 본문들과 또 이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바울이 다소와 아라비아에서 선교활동을 준비하며 자기 신학을 정교화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단순히 중세 수도사들처럼 기도와 묵상에 매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회심 직후 다메섹에서 즉시 전파했습니다(행9:20). 3년 후 예루살렘에 올라가 전파한 모습(행9:29)도 매우 활발하여 수도원적 태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여하간 바울은 자기를 다듬고 신학적 성숙을 꾀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부터 바나바로부터 안디옥 교회 동사 목사로 부름을 받기까지 그는 스스로를 다듬었습니다. 바울은 회심과 더불어 부여 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차 자신의 선교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의 사역과 삶이 성숙해졌고 구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정립하는 숙성의 시간을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LA 노숙자지원, 아이티 쓰레기마을 아동지원, 수리남 참전용사 자녀돕기에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 인생의 전부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작은 나눔 (30불, 50불)으로 희망을 나누는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교회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부흥, 교회성장론과 목회성공에의 재인식(1)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2020년 한 해 동안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현재 진행형이다. 다행히 백신이 보급되고 있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그 중에 235만 명이 사망했다. 한국에서는 8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1400여 명이 사망했으며, 미국에서는 343만 명이 감염되었고, 4만 4천 여 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불행을 당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각자 생활하는 공간에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이에, 교회가 코로나 질병을 대량 확산시킨 진원지처럼 언론의 집중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대면 집회 금지 조치를 당한 교회는 정부와 행정당국의 조치에 대해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교회의 미래에 치명상을 안겨 주고 말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 난감하게 되었다.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후, 미국에서는 다시 교회에 대면 제한적이거나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2021년 후반부에는 모든 모임이 차츰 정상화의 되고, 상당히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0년 2월 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내 예배와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에 항의하는 “캘리포니아 사우스 베이 연합 오순절 교회”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참고<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 실내에서 모이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억제하는 너무나 지나친 조치이므로 이런 명령을 개헌 뉴섬 주지사가 내려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다만 집단 발병의 위험이 높으므로, 집회 인원은 좌석의 25%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예배금지 조치는 자유를 억압한 것이어서 취소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른 주와는 달리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실내 예배를 엄격하게 금지했던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에 대해서 불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캘리포니아 주에서 실내예배 금지조치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중에서 6명 찬성, 3명 반대했다.

공평하게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하였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즈 (2021년 2월 5일자)는 미국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된다는 결정을 보도하면서, 다만 찬송과 소리를 지르는 것은 추가로 제한 조치를 했다.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2019년 추수감사주일 밤에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가정 내에서 25명 이내로만 모아야 한다는 조치를 내렸을 때에도, 연방대법원은 이 조치를 취하도록 판결했다. 조그만 상점에서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오직 교회 모임에 대해서만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부흥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어 있다면, 경건의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여러분은 교회의 부흥을 얼마나 열망하고 있는가? 부흥을 흑사라도 세상적인 성공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가? 흑사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냥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면, 교회의 부흥을 포기한 것이다.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아닌가? 누가 앞장을 서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무엇이 걸림돌인가? 누가 가장 부흥을 방해하는 자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불신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할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 적어 놓고서, 쉽 없이 부르짖고 있는가? 하나님께 언지 못함은 무슨 까닭인가? 기도하지 않고 욕심내고, 시기하기 때문이며, 기도하더라도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약 4:2-3).

사실 모든 목회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던져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 어떤 목회자가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헌신의 방법과 과정이 결과로 이어지지 못해서 안타깝다. 목회자

의 모든 언행에서 성도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않으면 부흥으로의 동력화가 불가능하다. 일반 성도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 출석에 열심을 다하고 있고, 기도 모임과 제자훈련, 혹은 각종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을 유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성도들 사이에는 인간적인 친소 관계가 얽히는 경우도 많고, 사업상의 경쟁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출신 지역이나 학교나 직업에서도 차별이 나타나는 등, 교회를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 교회 내에 상존하고 있는 인간적인 갈등 요소들과 불편한 상황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가 새롭게 충만해야만 한다.

교회의 부흥은 걸림돌이 되는 방해자들과 방관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동력화 될 때 가능하다. 특히 목회자 자신이 교회의 부흥에 열쇠를 갖고 있기에, 성도들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부흥의 방관자로

남는 교인들이 없어야 하고, 목회자 자신도 부흥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주님! 냉소주의와 비판론에 맞서서, 성령으로 충만한 일꾼들이 영원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021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홍준 목사)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 인준 신학교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p>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회(BCA), 목회학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서약 가능 목회학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716(26)227-3454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이사장: 조종근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master@gmail.com</p>	<p>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p> <p>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p> <p>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p> <p>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s.edu</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p> <p>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p>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p> <p>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p> <p>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p>

트럼프 탄핵 부결에 “하나님과 나라 사랑하는 시민들 감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미 상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 후, “수백만 명의 품위 있고, 근면하며,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 심판은 ‘미국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14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 상원의 탄핵안 부결 결정 후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7명을 제외한 43명의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으며, 총 57명이 찬성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2/3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자랑스럽게 헌법과 국가의 심장에 놓인 신성한 법적 원리를 수호해 준 상원의원들과 의회 멤버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수 개월간 여러분과 공유할 것이 많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 모두를 위한 미국의 위대함을 달성하려는, 우리의 믿을 수 없는 여정을 함께 지속할 것을 고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며, 우리는 밝고 빛나며 무한한 미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백악관

과 함께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하나님의 통

보존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미국에 영원히 복을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공화당 상원의원은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리처드 버(노스캐롤라이나), 미트 롬니(유타), 수잔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벤 새스(네브라스카),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의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지난 1월 6일 의회에서 벌어진 폭동 사건으로 인해 시작됐다.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발표했다.

강혜진 기자

미 복음주의 기독교인, ‘국가 자부심’ 종교단체 중 가장 높아



©Unsplash/MICHAEL WILSON

미국 기업 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서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들보다 미국의 정체성에 대해 더 큰 자부심을 표현한 종교 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신자 중 4분의 3 이상은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답했으며, 그 중 절반(50%)이 “상당히 자랑스럽게(extremely proud)”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백인 주류 개신교 신자 10명 중 4명 이상(43%)과 백인 가톨릭 신자(46%)도 자신들의 국가 정체성이 상당히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나이가 많은 미국인(65%)들은 젊은 층(23%)보다 미국에 대해 두 배 이상이나 높은 자부심을 보였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들의 국

가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으며, 10명 중 6명 이상이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거나(34%), 매우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 결과, 미국인의 절반 이상(53%)이 더 많은 나라가 미국의 가치와 미국적 삶의 방식을 채택하면 세계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CP 보도에 따르면, 이전 연구에서 복음주의 개신교는 어느 종교 단체보다 기독교 민족주의(Christian nationalism)를 공감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기독교와 미국 시민 생활의 융합을 이상화하고 옹호하는 문화적 틀로서 정의되며, 주로 정치 및 사회 생활에서 자신들의 기독교관을 반영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기독교 지도자들은 교인들

이 과격한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부교수이자 ‘미국을 다시 하나님께로’의 저자인 사무엘 페리(Samuel Perry)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에게 “우리의 종교적 신념과 가치를 제도화”하길 원하고 있고 “외국인 혐오나 인종차별적인 견해를 갖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CP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는 단순히 “미국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기독교 민족주의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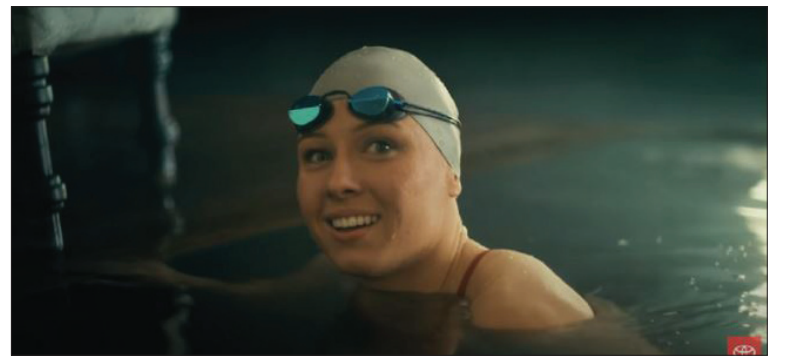
그러면서 그는 미국이란 국가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거나 십자가와 국기를 합치는 것에 대해선 “끔찍하고 위험한 실수”이며 “그것은 기독교 민족주의가 가진 오류”라고 지적했다.

브라운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미국에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을 영적인 피난처 라기보다 우리의 선교지로 본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릴 위해 두신 어떤 계획이라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도울 것”이라며 “어떤 정치 지도자보다 예수님을 무한히 높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토요타 슈퍼볼 광고, 입양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존엄성 보여줬다”



토요타 '2021 슈퍼볼' 광고에 등장한 제시카 롱. ©유튜브 영상 캡처

일본 자동차 기업 토요타가 2021 슈퍼볼에서 선보인 광고가 입양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존엄성을 드러내며 호평을 받았다.

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피플지와 CNN 등 다양한 현지 언론들은 지난 7일 밤 슈퍼볼 경기 도중 가장 눈길을 끈 광고로 토요타를 꼽았다. 토요타는 광고에서 패럴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제시카 롱의 이야기를 선보였다.

광고는 어두운 물 속에서 자유롭게 수영하는 제시카 롱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후 롱의 어머니는 어딘가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전화 속 여성은 “당신이 입양할 여자 아기를 찾았다.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다. 그 아이는 시베리아에서 태어났는데, 희귀병으로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한다”며 “매우 힘든 이야기라는 것을 안다. 이 아이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롱의 어머니는 잠시 놀랐지만, “물론 쉽지 않겠지만 분명 놀라운 것”이라며 “빨리 아기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이후 롱은 한 가족이 되었다.

전화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롱은 계속 물 속에서 수영을 한다. 그녀가 수영하는 동안 고아원에서의 어린 시절, 입양된 후 목발을 짚고 걷는 연습을 하던 모습, 처음으로 수영을 시작했던 일, 열심히 수영 훈련을 하는 모습, 수영 선수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는 모습 등이 스쳐 지나간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그 때 그 순간의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다. 그리고 광고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제시카 롱은 두 다리를 절단하기 5개월 전인 생후 13개월 때 한 고아원을 통해 미국에서 온 베스와 스티브 롱 부부에게 입양됐다.

자라면서 롱은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조, 빙상, 자전거, 트럼펫, 수영 등 많은 스포츠에 참여했으며, 그 중 수영에 가장 열정적이었다고.

21살 때 생모를 만난 그녀는 “후회는 없어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믿어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 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美 연방 판사, 뉴욕주 예배 제한 조치 영구 금지 명령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주지사 플리커 계정

지난해 11월 미 연방대법원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내린 실내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최근 연방 판사가 이 조치를 영구 금지했다고 9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시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미 지방법원 기요 A. 마스모 판사는 주 전역의 적색 및 황색 구역에 속한 모든 예배당에 적용되어 온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영구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간 적색 지역에서는 실내 예배 가능 인원이 수용 시설의 25%와 10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황색 지역에서는 실내 예배 가능 인원이 수용 시설의 33%와 25명 중 인원이 더 적은 쪽으로 제한돼 왔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명령을 내렸고 예배당에 대한 지침은 수정되지 않은 채 5번 연장됐다.

이 같은 제한지침에 대해 정통 유대인 공동체와 브루클린 로마가톨릭교구 등 종교 단체들은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뉴욕주의 코로나19 제한 지침이 수정헌법 제1조 '자유활동조항'(Free Exercise Clause)에 따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연방대법원은 '필수적인' 사업과 일부 '비필수적인' 사업들이 동일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뉴욕주의 제한 지침은 중립적이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일시적으로 명령을 금지했다. 대법원은 "예배 인원 고정은 엄격하고 면밀한 조사를 만족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2항소법원은 "행정명령 집행에 반하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리라"는 지시와 더불어 이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보냈고, 1월 19일 지방법원은 원고들에게 예비 가처분 신청을 허가했다고 CP는 전했다. 이미경 기자

팀 켈러, 최근 SNS에 "암 중앙 현저히 감소" 소식 알려



팀 켈러 목사 ©A, Larry Ross Communications

작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미국의 팀 켈러(Tim Keller) 목사가 긍정적인 회복 소식을 전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올해로 70세인 켈러 목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췌장암 치료 기간 동안, 하나님께 그리고 저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해주신 많은 분께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총 14번의 항암 화학요법(chemotherapy) 치료를 받으며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5월부터 총 3번의 CT 촬영을 했으며, 지난 8일 결과에 대해 "처음 두 번의 스캔은 각각 종양의 크기와 수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2월 스캔에는 이전에 수많은 흑이 있던 자리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켈러는 "여전히 암에 걸려 있지만 이는 훌륭한 소식"이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항암 화학요법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루신 것에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분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믿음을 보였다.

켈러는 지난 2002년 갑상선암으로 투병했지만 완치 판정을 받게 되자 '고난 속

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후 그는 67세가 되던 2017년에 뉴욕 리더마 장로교회의 담임직을 사임했다.

그는 췌장암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필과 SNS 상에서 활동 등을 이어왔다.

켈러는 지난 11월 CP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질병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이 암 진단을 받기 전의 영적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현실은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생각한다"며 "하나님이 통제하심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인생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 때까지' 그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켈러 목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대개 고통의 순간"이라며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더 행복하다"고 언급했다.

당시 그는 "전에 한번도 즐기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 주변의 것들을 즐기고 있다. 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본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경험한 어느 때보다도 기도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고백했다.

강연숙 기자

교회혁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평일부 예배 오전 11:00
평일부 예배 오후 7:00
금요일 아침과 살 공부 오후 7:00
토요일 아침예배 오전 9: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내세대에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토) 오전 6:20(토)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토)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2세대를 영육하며, 이방인들이 영육하며, 선교를 영육하며 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in 코너)
T. (213) 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토)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h.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1340 E 6th St., #419, LA, CA 90021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석)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토)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와 이웃과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 1블럭)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토)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모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치유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십자가 복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델리안) (소매)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티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E/M(대, 청) 오후 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월-토)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d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리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cs.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지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냄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월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영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교 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 6: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훈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주조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O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일)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목요일)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목요일)**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이다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현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교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찬양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블리제틀 MP제틀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6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7부 예배 오전 1:00 주일 8부 예배 오전 1:30 주일 9부 예배 오전 2:00 주일 10부 예배 오전 2:30 주일 11부 예배 오전 3:00 주일 12부 예배 오전 3:30 주일 13부 예배 오전 4:00 주일 14부 예배 오전 4:30 주일 15부 예배 오전 5:00 주일 16부 예배 오전 5:30 주일 17부 예배 오전 6:00 주일 18부 예배 오전 6:30 주일 19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3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4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5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6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7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8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9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30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31부 예배 오전 1:00 주일 32부 예배 오전 1:30 주일 33부 예배 오전 2:00 주일 34부 예배 오전 2:30 주일 35부 예배 오전 3:00 주일 36부 예배 오전 3:30 주일 37부 예배 오전 4:00 주일 38부 예배 오전 4:30 주일 39부 예배 오전 5:00 주일 40부 예배 오전 5:30 주일 41부 예배 오전 6:00 주일 42부 예배 오전 6:30 주일 43부 예배 오전 7:00 주일 4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45부 예배 오전 8:00 주일 46부 예배 오전 8:30 주일 47부 예배 오전 9:00 주일 48부 예배 오전 9:30 주일 49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50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5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3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54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55부 예배 오전 1:00 주일 56부 예배 오전 1:30 주일 57부 예배 오전 2:00 주일 58부 예배 오전 2:30 주일 59부 예배 오전 3:00 주일 60부 예배 오전 3:30 주일 61부 예배 오전 4:00 주일 62부 예배 오전 4:30 주일 63부 예배 오전 5:00 주일 64부 예배 오전 5:30 주일 65부 예배 오전 6:00 주일 66부 예배 오전 6:30 주일 67부 예배 오전 7:00 주일 68부 예배 오전 7:30 주일 69부 예배 오전 8:00 주일 70부 예배 오전 8:30 주일 7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7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73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74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75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76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77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78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79부 예배 오전 1:00 주일 80부 예배 오전 1:30 주일 81부 예배 오전 2:00 주일 82부 예배 오전 2:30 주일 83부 예배 오전 3:00 주일 84부 예배 오전 3:30 주일 85부 예배 오전 4:00 주일 86부 예배 오전 4:30 주일 87부 예배 오전 5:00 주일 88부 예배 오전 5:30 주일 89부 예배 오전 6:00 주일 90부 예배 오전 6:30 주일 9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92부 예배 오전 7:30 주일 93부 예배 오전 8:00 주일 94부 예배 오전 8:30 주일 95부 예배 오전 9:00 주일 96부 예배 오전 9:30 주일 97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98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99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100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101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102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10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104부 예배 오전 1:30 주일 105부 예배 오전 2:00 주일 106부 예배 오전 2:30 주일 107부 예배 오전 3:00 주일 108부 예배 오전 3:30 주일 109부 예배 오전 4:00 주일 110부 예배 오전 4:30 주일 111부 예배 오전 5:00 주일 112부 예배 오전 5:30 주일 113부 예배 오전 6:00 주일 114부 예배 오전 6:30 주일 115부 예배 오전 7:00 주일 116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17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18부 예배 오전 8:30 주일 119부 예배 오전 9:00 주일 120부 예배 오전 9:30 주일 12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12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12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12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125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126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127부 예배 오전 1:00 주일 128부 예배 오전 1:30 주일 129부 예배 오전 2:00 주일 130부 예배 오전 2:30 주일 131부 예배 오전 3:00 주일 132부 예배 오전 3:30 주일 133부 예배 오전 4:00 주일 134부 예배 오전 4:30 주일 135부 예배 오전 5:00 주일 136부 예배 오전 5:30 주일 137부 예배 오전 6:00 주일 138부 예배 오전 6:30 주일 139부 예배 오전 7:00 주일 14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4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4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143부 예배 오전 9:00 주일 144부 예배 오전 9:30 주일 145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146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147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148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149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150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151부 예배 오전 1:00 주일 152부 예배 오전 1:30 주일 153부 예배 오전 2:00 주일 154부 예배 오전 2:30 주일 155부 예배 오전 3:00 주일 156부 예배 오전 3:30 주일 157부 예배 오전 4:00 주일 158부 예배 오전 4:30 주일 159부 예배 오전 5:00 주일 160부 예배 오전 5:30 주일 161부 예배 오전 6:00 주일 162부 예배 오전 6:30 주일 163부 예배 오전 7:00 주일 16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65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66부 예배 오전 8:30 주일 167부 예배 오전 9:00 주일 168부 예배 오전 9:30 주일 169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170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17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17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173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174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175부 예배 오전 1:00 주일 176부 예배 오전 1:30 주일 177부 예배 오전 2:00 주일 178부 예배 오전 2:30 주일 179부 예배 오전 3:00 주일 180부 예배 오전 3:30 주일 181부 예배 오전 4:00 주일 182부 예배 오전 4:30 주일 183부 예배 오전 5:00 주일 184부 예배 오전 5:30 주일 185부 예배 오전 6:00 주일 186부 예배 오전 6:30 주일 187부 예배 오전 7:00 주일 188부 예배 오전 7:30 주일 189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90부 예배 오전 8:30 주일 19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19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193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194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195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196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197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198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199부 예배 오전 1:00 주일 200부 예배 오전 1:30 주일 201부 예배 오전 2:00 주일 202부 예배 오전 2:30 주일 203부 예배 오전 3:00 주일 204부 예배 오전 3:30 주일 205부 예배 오전 4:00 주일 206부 예배 오전 4:30 주일 207부 예배 오전 5:00 주일 208부 예배 오전 5:30 주일 209부 예배 오전 6:00 주일 210부 예배 오전 6:30 주일 21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12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13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14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15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16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17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18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19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20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21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222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22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224부 예배 오전 1:30 주일 225부 예배 오전 2:00 주일 226부 예배 오전 2:30 주일 227부 예배 오전 3:00 주일 228부 예배 오전 3:30 주일 229부 예배 오전 4:00 주일 230부 예배 오전 4:30 주일 231부 예배 오전 5:00 주일 232부 예배 오전 5:30 주일 233부 예배 오전 6:00 주일 234부 예배 오전 6:30 주일 235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36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37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38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39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40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4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4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4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4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45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246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247부 예배 오전 1:00 주일 248부 예배 오전 1:30 주일 249부 예배 오전 2:00 주일 250부 예배 오전 2:30 주일 251부 예배 오전 3:00 주일 252부 예배 오전 3:30 주일 253부 예배 오전 4:00 주일 254부 예배 오전 4:30 주일 255부 예배 오전 5:00 주일 256부 예배 오전 5:30 주일 257부 예배 오전 6:00 주일 258부 예배 오전 6:30 주일 259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6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6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6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63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64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65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66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67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68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69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270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271부 예배 오전 1:00 주일 272부 예배 오전 1:30 주일 273부 예배 오전 2:00 주일 274부 예배 오전 2:30 주일 275부 예배 오전 3:00 주일 276부 예배 오전 3:30 주일 277부 예배 오전 4:00 주일 278부 예배 오전 4:30 주일 279부 예배 오전 5:00 주일 280부 예배 오전 5:30 주일 281부 예배 오전 6:00 주일 282부 예배 오전 6:30 주일 283부 예배 오전 7:00 주일 28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85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86부 예배 오전 8:30 주일 287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88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89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90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29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9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293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294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295부 예배 오전 1:00 주일 296부 예배 오전 1:30 주일 297부 예배 오전 2:00 주일 298부 예배 오전 2:30 주일 299부 예배 오전 3:00 주일 300부 예배 오전 3:30 주일 301부 예배 오전 4:00 주일 302부 예배 오전 4:30 주일 303부 예배 오전 5:00 주일 304부 예배 오전 5:30 주일 305부 예배 오전 6:00 주일 306부 예배 오전 6:30 주일 307부 예배 오전 7:00 주일 308부 예배 오전 7:30 주일 309부 예배 오전 8:00 주일 310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1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1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13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14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15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16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17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318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319부 예배 오전 1:00 주일 320부 예배 오전 1:30 주일 321부 예배 오전 2:00 주일 322부 예배 오전 2:30 주일 323부 예배 오전 3:00 주일 324부 예배 오전 3:30 주일 325부 예배 오전 4:00 주일 326부 예배 오전 4:30 주일 327부 예배 오전 5:00 주일 328부 예배 오전 5:30 주일 329부 예배 오전 6:00 주일 330부 예배 오전 6:30 주일 33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332부 예배 오전 7:30 주일 333부 예배 오전 8:00 주일 334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35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36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37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38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39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40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41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342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34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344부 예배 오전 1:30 주일 345부 예배 오전 2:00 주일 346부 예배 오전 2:30 주일 347부 예배 오전 3:00 주일 348부 예배 오전 3:30 주일 349부 예배 오전 4:00 주일 350부 예배 오전 4:30 주일 351부 예배 오전 5:00 주일 352부 예배 오전 5:30 주일 353부 예배 오전 6:00 주일 354부 예배 오전 6:30 주일 355부 예배 오전 7:00 주일 356부 예배 오전 7:30 주일 357부 예배 오전 8:00 주일 358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59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60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6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6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6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6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65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366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367부 예배 오전 1:00 주일 368부 예배 오전 1:30 주일 369부 예배 오전 2:00 주일 370부 예배 오전 2:30 주일 371부 예배 오전 3:00 주일 372부 예배 오전 3:30 주일 373부 예배 오전 4:00 주일 374부 예배 오전 4:30 주일 375부 예배 오전 5:00 주일 376부 예배 오전 5:30 주일 377부 예배 오전 6:00 주일 378부 예배 오전 6:30 주일 379부 예배 오전 7:00 주일 38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38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38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383부 예배 오전 9:00 주일 384부 예배 오전 9:30 주일 385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86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87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88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389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390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391부 예배 오전 1:00 주일 392부 예배 오전 1:30 주일 393부 예배 오전 2:00 주일 394부 예배 오전 2:30 주일 395부 예배 오전 3:00 주일 396부 예배 오전 3:30 주일 397부 예배 오전 4:00 주일 398부 예배 오전 4:30 주일 399부 예배 오전 5:00 주일 400부 예배 오전 5:30 주일 401부 예배 오전 6:00 주일 402부 예배 오전 6:30 주일 403부 예배 오전 7:00 주일 40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405부 예배 오전 8:00 주일 406부 예배 오전 8:30 주일 407부 예배 오전 9:00 주일 408부 예배 오전 9:30 주일 409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410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41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1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13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414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415부 예배 오전 1:00 주일 416부 예배 오전 1:30 주일 417부 예배 오전 2:00 주일 418부 예배 오전 2:30 주일 419부 예배 오전 3:00 주일 420부 예배 오전 3:30 주일 421부 예배 오전 4:00 주일 422부 예배 오전 4:30 주일 423부 예배 오전 5:00 주일 424부 예배 오전 5:30 주일 425부 예배 오전 6:00 주일 426부 예배 오전 6:30 주일 427부 예배 오전 7:00 주일 428부 예배 오전 7:30 주일 429부 예배 오전 8:00 주일 430부 예배 오전 8:30 주일 43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43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433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434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435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36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37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438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439부 예배 오전 1:00 주일 440부 예배 오전 1:30 주일 441부 예배 오전 2:00 주일 442부 예배 오전 2:30 주일 443부 예배 오전 3:00 주일 444부 예배 오전 3:30 주일 445부 예배 오전 4:00 주일 446부 예배 오전 4:30 주일 447부 예배 오전 5:00 주일 448부 예배 오전 5:30 주일 449부 예배 오전 6:00 주일 450부 예배 오전 6:30 주일 45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452부 예배 오전 7:30 주일 453부 예배 오전 8:00 주일 454부 예배 오전 8:30 주일 455부 예배 오전 9:00 주일 456부 예배 오전 9:30 주일 457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458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459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60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61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462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46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464부 예배 오전 1:30 주일 465부 예배 오전 2:00 주일 466부 예배 오전 2:30 주일 467부 예배 오전 3:00 주일 468부 예배 오전 3:30 주일 469부 예배 오전 4:00 주일 470부 예배 오전 4:30 주일 471부 예배 오전 5:00 주일 472부 예배 오전 5:30 주일 473부 예배 오전 6:00 주일 474부 예배 오전 6:30 주일 475부 예배 오전 7:00 주일 476부 예배 오전 7:30 주일 477부 예배 오전 8:00 주일 478부 예배 오전 8:30 주일 479부 예배 오전 9:00 주일 480부 예배 오전 9:30 주일 48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48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48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48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485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486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487부 예배 오전 1:00 주일 488부 예배 오전 1:30 주일 489부 예배 오전 2:00 주일 490부 예배 오전 2:30 주일 491부 예배 오전 3:00 주일 492부 예배 오전 3:30 주일 493부 예배 오전 4:00 주일 494부 예배 오전 4:30 주일 495부 예배 오전 5:00 주일 496부 예배 오전 5:30 주일 497부 예배 오전 6:00 주일 498부 예배 오전 6:30 주일 499부 예배 오전 7:00 주일 50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0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50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503부 예배 오전 9:00 주일 504부 예배 오전 9:30 주일 505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506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507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08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09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510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511부 예배 오전 1:00 주일 512부 예배 오전 1:30 주일 513부 예배 오전 2:00 주일 514부 예배 오전 2:30 주일 515부 예배 오전 3:00 주일 516부 예배 오전 3:30 주일 517부 예배 오전 4:00 주일 518부 예배 오전 4:30 주일 519부 예배 오전 5:00 주일 520부 예배 오전 5:30 주일 521부 예배 오전 6:00 주일 522부 예배 오전 6:30 주일 523부 예배 오전 7:00 주일 52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25부 예배 오전 8:00 주일 526부 예배 오전 8:30 주일 527부 예배 오전 9:00 주일 528부 예배 오전 9:30 주일 529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530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53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3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33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534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535부 예배 오전 1:00 주일 536부 예배 오전 1:30 주일 537부 예배 오전 2:00 주일 538부 예배 오전 2:30 주일 539부 예배 오전 3:00 주일 540부 예배 오전 3:30 주일 541부 예배 오전 4:00 주일 542부 예배 오전 4:30 주일 543부 예배 오전 5:00 주일 544부 예배 오전 5:30 주일 545부 예배 오전 6:00 주일 546부 예배 오전 6:30 주일 547부 예배 오전 7:00 주일 548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49부 예배 오전 8:00 주일 550부 예배 오전 8:30 주일 55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552부 예배 오전 9:30 주일 553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554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555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56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57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558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559부 예배 오전 1:00 주일 560부 예배 오전 1:30 주일 561부 예배 오전 2:00 주일 562부 예배 오전 2:30 주일 563부 예배 오전 3:00 주일 564부 예배 오전 3:30 주일 565부 예배 오전 4:00 주일 566부 예배 오전 4:30 주일 567부 예배 오전 5:00 주일 568부 예배 오전 5:30 주일 569부 예배 오전 6:00 주일 570부 예배 오전 6:30 주일 571부 예배 오전 7:00 주일 572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73부 예배 오전 8:00 주일 574부 예배 오전 8:30 주일 575부 예배 오전 9:00 주일 576부 예배 오전 9:30 주일 577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578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579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580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581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582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583부 예배 오전 1:00 주일 584부 예배 오전 1:30 주일 585부 예배 오전 2:00 주일 586부 예배 오전 2:30 주일 587부 예배 오전 3:00 주일 588부 예배 오전 3:30 주일 589부 예배 오전 4:00 주일 590부 예배 오전 4:30 주일 591부 예배 오전 5:00 주일 592부 예배 오전 5:30 주일 593부 예배 오전 6:00 주일 594부 예배 오전 6:30 주일 595부 예배 오전 7:00 주일 596부 예배 오전 7:30 주일 597부 예배 오전 8:00 주일 598부 예배 오전 8:30 주일 599부 예배 오전 9:00 주일 600부 예배 오전 9:30 주일 601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60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603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604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605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606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607부 예배 오전 1:00 주일 608부 예배 오전 1:30 주일 609부 예배 오전 2:00 주일 610부 예배 오전 2:30 주일 611부 예배 오전 3:00 주일 612부 예배 오전 3:30 주일 613부 예배 오전 4:00 주일 614부 예배 오전 4:30 주일 615부 예배 오전 5:00 주일 616부 예배 오전 5:30 주일 617부 예배 오전 6:00 주일 618부 예배 오전 6:30 주일 619부 예배 오전 7:00 주일 620부 예배 오전 7:30 주일 62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622부 예배 오전 8:30 주일 623부 예배 오전 9:00 주일 624부 예배 오전 9:30 주일 625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626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627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628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629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630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631부 예배 오전 1:00 주일 632부 예배 오전 1:30 주일 633부 예배 오전 2:00 주일 634부 예배 오전 2:30 주일 635부 예배 오전 3:00 주일 636부 예배 오전 3:30 주일 637부 예배 오전 4:00 주일 638부 예배 오전 4:30 주일 639부 예배 오전 5:00 주일 640부 예배 오전 5:30 주일 641부 예배 오전 6:00 주일 642부 예배 오전 6:30 주일 643부 예배 오전 7:00 주일 644부 예배 오전 7:30 주일 645부 예배 오전 8:00 주일 646부 예배 오전 8:30 주일 647부 예배 오전 9:00 주일 648부 예배 오전 9:30 주일 649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650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65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652부 예배 오전 11:30 주일 653부 예배 오전 12:00 주일 654부 예배 오전 12:30 주일 655부 예배 오전 1:00 주일 656부 예배 오전 1:30 주일 657부 예배 오전 2:00 주일 658부 예배 오전 2:30 주일 659부 예배 오전 3:00 주일 660부 예배 오전 3:30 주일 661부 예배 오전 4:00 주일 662부 예배 오전 4:30 주일 663부 예배 오전 5:00 주일 664부 예배 오전 5:30 주**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학생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겨울학기 강의시간표

Day	Time	Class	Professor
Mon	7:00 PM - 9:00 PM	조직신학2 Systematic Theology II	Jong Yong Kim
Tue	7:00 PM - 9:00 PM	바울서신2 Pauline Epistles II	James Lee
Wed	8:30 PM - 10:30 PM	기도학 Theology of Pray	Elijah Kim
Thu	7:00 PM - 9:00 PM	선교신학 Theology of Mission	David Lee
Fri	8:30 PM - 10:30 PM	크리스천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Rev, Jong Kim
Sat	7:00 PM - 9:00 PM	에스라,느헤미야 Ezra, Nehemiah	Timothy Song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영적인 삶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영어버전에 성경구절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데 NIV 버전에서는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이란 육신의 정욕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졌기에 우리의 육적인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삶에 모습은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즉 상속자로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 자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삶이 우선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는 겸손과 순종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복에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4절 - 16절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복, 올바른 관계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신뢰를 전제로 하기에 하나님 중심에 삶에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자기신뢰와 자기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주님의 사람이 된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 16절

성경에 보게 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하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습성을 아직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먹을 수 없고 먹어도 급제하여 버리게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도전도 이와 같이 새사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영적인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본문은 이에 대하여 14절에 말씀하시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삶이란 매일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도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따라 한결음씩 용기 있게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쉽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본문 13절에서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것” 이 영적인 삶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신용환 목사
나성ham교회

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주 하나님께 이 백성의 라파/로페가 되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살고 있는 유다백성에게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과 징계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렘 8:4)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더 멀리 어긋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호소하듯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렘 8:21-22) 유다 백성 길르앗이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치료하는 유태의사도 있는데 백성들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의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백성들이 하나님께도 돌아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렘 8:14)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팬데믹이 나고서 그 원인과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입니다. 는 이 팬데믹의 상황은 하나님의 형벌이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깨어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와 세상을 인간의 탐욕과 더러움으로 더럽히지 말고 망가뜨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분명 인간에 일어나는 전염병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 점은 분명합니다. 이 전염병이 우연히 발생하거나 어쩌다가 생긴 자연발생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 이 전염병의 발생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전염병은 모두 하나님과 깊은 연관이 있고 분명 하나님은 모든 상황속에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실 줄 아는 여호와,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이시다. 모든 질병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의 손길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페이십니다.

우리는 팬데믹 with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류의 역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인들은 천연두, 흑사병 페스트, 에볼라 그리고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메르스 오늘의 코로나-19까지 시대에 강한 힘을 발휘하고 역사를 바꾼 전염병들입니다.

<with 코로나, Post 코로나 시대 >살게 된지 1년입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의 세상, with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지를 깨닫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 되어서 인간의 수명은 늘고 있지만 아직 수 많은 병들은 완벽하게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는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치료하는 의사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있다.> 는 말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 볼 출애굽기 15장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모든 질병과 전염병과 관련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실 뿐 아니라, 궁극적인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전염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로페가 되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와 이름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경험 가운데서 발생하는 인간의 모든 필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로라/로페(회복시키다.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단어가 약 70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예레미야서입니다.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포했던 눈물

정성욱 교수의 조직신학 에세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덴버신학대학원 정성욱 교수

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며, 그 형상을 따라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관점이다. 필자가 보기에 두 가지 관점은 서로 충돌한다고 보기는 보완한다고 보여진다. 둘 중에서 어느 관점을 택하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다.

또한 “형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중요하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창세기가 기록된 당시의 고대근동의 문화를 고려할 때 “형상”이라는 말은 반영, 반사, 대표, 아들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사됨을 보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로, 심지어 대신하는 자로 창조되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신의 아들권을 가진 자 즉 왕족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지배자인 왕들만이 신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창세기의 계시는 왕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즉 만민이 신적 왕족으로 창조되었음을 함의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가지고 있는 존엄과 신성함 그리고 그들간의 존재론적 평등을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혁명적인 사상 즉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는 사상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세 가지 관점이 제시되었다. 하나는 실체론이다 (the substantive view). 실체론에 의하면 인간이 실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의 영혼, 이성, 자유의

지 같은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또는 사랑, 의, 지식 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attributes)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이다. 실체적 관점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에드워즈 같은 고전적인 신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이성과 자유의지와 여타 속성들은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일 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짐승을 구별해 주는 표지들이다. 필자는 이 관점이 분명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체론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두 번째 관점은 관계론이다 (the relational view). 관계론에 의하면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는 성향 (relational inclination) 또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relational capacity) 즉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론은 칼 바르트 (Karl Barth, 1886-1968)나 에밀 브루너 (Emil Brunner, 1889-1966)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특히 바르트는 하나님이 창조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브루너 역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성 또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성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핵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바르트와 브루너가 말하는 관계성은 단순히 인간이 사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적 관계성 (possessive relationship)이 아니라,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함께 누리는 인격적 관계성 (personal relationship)을 의미한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누리는 인격적

관계성이야말로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 관점 역시 성경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다고 믿는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성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매우 깊은 인격적 관계와 친교를 누리고 있음을 이해할 때, 이 관계론적 관점은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론적 관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세 번째 관점은 기능론이다 (the functional view). 기능론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기능, 특별히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능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책임을 부여 받았다. 바로 그 점에서 사람은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독특성을 가진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부여된 통치권의 성격을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통치권은 피조물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악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도리어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는 권한 즉 정치기적 통치권이다.

놀랍게도 인간에게 주신 통치권은 타락 이후에 마귀에게 넘어갔다. 마귀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통치권을 찬탈한 후 모든 인간을 노예로 삼고 지금도 착취와 학대와 폭압을 일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 본래 부여 받았던 만물 통치 기능을 부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 실례가 바로 사람이 가축을 길들여 사육하거나 반려동물들을 길들여 사람에게 봉사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다. 이 기능론적 관점 역시 성경적 근거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론적 관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는 이 세 가지 관점들을 통합한 관점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사람이 영혼과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리와 사랑과 의와 같은 속성을 구유한 존재라는 말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기능을 부여 받은 존재라는 것을 뜻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일부 신학자들은 범죄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멸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은 심대하게 왜곡되었다. 그 결과 인간 본성의 모든 면들이 죄로 물들게 되었고, 참된 관계의 능력은 심각하게 파손되었으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요컨대 인간은 “폐위된 왕족” (deposed royalty)이 된 것이다.

결국 폐위된 왕족으로서 마귀와 사탄에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주님과 구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 오직 그때에야 죄인은 죄사함과 거듭남과 칭의와 영생과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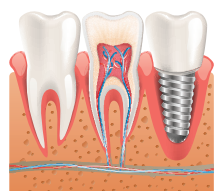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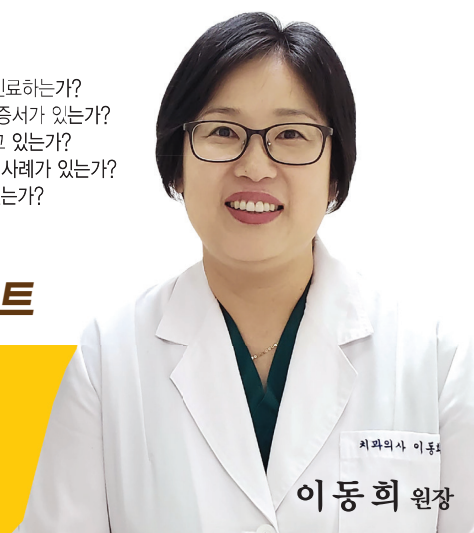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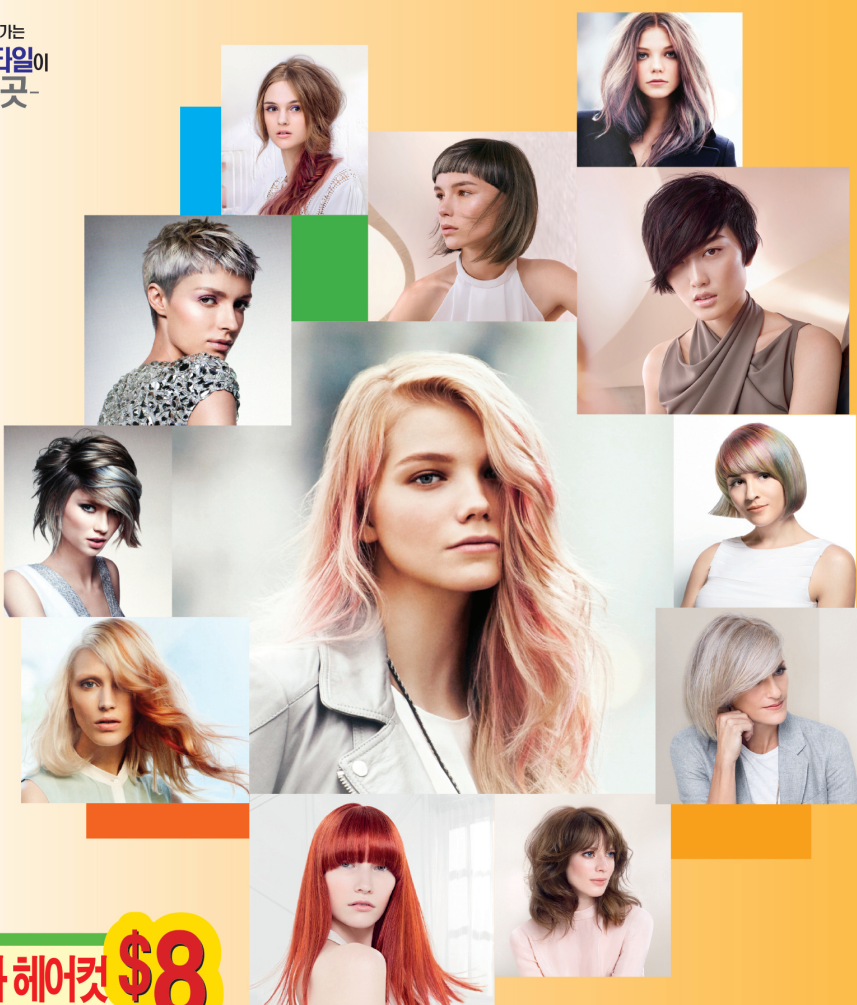


치과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요한계시록 21:1-8



서울성인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중략)...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 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1.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기대와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한 해를 아쉬움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육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기 인생의 기대와 꿈으로 생각하고 살다가 연말이 되어도 그 기대가 끝내 실현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면,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을 비판하며 스스로 인생을 실패와 불행으로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로 얻어지는 결과는 헛되고 허무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금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

본문 1절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왜 처음의 하늘과 땅은 없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7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찌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진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일부러 안 믿고 다른 사람들도 못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당시 기롱(傲弄) 속이고 희롱하는 것)하는 자들, 거짓 선동하는 자들을 쓸어 없애버리시기 위해 노아 때 홍수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면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하십니다.

3. 하나님으로 온전히 즐거워 할 가장 사랑하는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구원 얻어 하늘나라에 가 있던 영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모두 데리고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고 천국에 있던 영들은 각기 흩어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체를 입어 영적체질로 되살아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신 것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목숨 걸고 믿

음을 지킨 사람들을 천사들이 와서 붙들고 예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이러한 휴거 과정에서 이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소망을 목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갖추기 위해 신앙생활하시기 바라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 동료들을 이 생생 길로 인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주인공으로 자격 갖추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데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을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아 누리게 될 것이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며, 육신이 원하는 본능적 욕구로 짐승같이 살게 되면서 짓게 되는 죄악들입니다. 이러한 죄악 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모두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로 승리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영광스러운 아들, 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인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본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치과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Vermont Ave

Menlo Ave

Westmoreland Ave

Olympic Blvd

박옥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디트리히 본회퍼, 오해와 편견 (7)

오해와 질타의 경계선에 선 한국교회, 본회퍼에게 묻다

홍악범죄에 대한 당연한 질타조차 못 받아들이고 정치적 선동과 공격으로 몰아가는 적반하장 자세. 정당한 질타에는 내부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오해의 조장: 폐쇄성이 키운 악의적 오해

193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유럽인들 대부분은 유럽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이민족, 이방인들에 대해 결코 개방적인 이들이 아니었다.

1500년대부터 전 세계에 식민지와 거점 항구들을 세우고 아메리카,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원주민들과 활발하게 교역하며 유럽이라는 테두리에 갇혀 있던 좁은 세계관을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다. 유럽인들이 유럽 바깥 사람들을 대할 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는 항상 자신들이 침략자이거나 혹은 지배자의 위치를 점할 때일 뿐이었다.

유럽 바깥 사람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있거나 유럽 바깥 사람들의 위치에 위축되는 경우, 유럽인들은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즉 유럽인들이 주도하는 문화 개방과 교류는 허용하지만 유럽 바깥 사람들이 주도하는 관계는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 유럽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였다.

이러한 태도는 유럽인들의 역사 기술방식에도 나타나는데, 유럽의 우월성 중심으로 세계사를 기술하고 세부 사건들을 평가하는 이런 편협한 태도를 유럽중심주의(Eurocentrism)라고 한다.

사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기중심성과 폐쇄성이고,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민족 간 혹은 국가 간 교류와 통인이 활성화된 시기조차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어쨌든 1932년 의회 장악을 통해 독일 제1당으로 등극한 나치의 지도자 히틀러와 그의 최측근 괴벨스는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이 민족적 자기중심성과 폐쇄성을 자극해서 유럽 내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이 때 주로 활용된 방법이 유대인들에 대한 악의적 오해를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오래 전부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킬 때 자주 사용되어왔던 전략

이다. 독일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와 적개심을 증폭시키는 나치의 전략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의 정치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고서 원래 유럽 땅의 주인인 유럽인들을 노예화하고 있다고 선동하여 그렇지 않아도 전통적으로 반유대주의 성향을 갖고 있던 독일인들의 마음 속에 유대인들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극소수의 유대인 혈통 엘리트들이 유럽 정계와 금융계에서 활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히틀러와 괴벨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유럽인들 전체의 운명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지배적 위치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런 유대인 엘리트 계층은 유럽 내 유대인 혈통 후예들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유대인 후손들은 각 나라의 서민과 중산층으로 평범한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1920-30년대 독일 국민들은 타민족을 기본적으로 멸시하는 자기중심성과 폐쇄성,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패전의 분노를 돌릴 만한 대상을 찾으려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거짓된 믿음을 조장하는 나치의 선동에 그대로 속아넘어가고 만다.

◆오해의 극복: 악의적 음해와 정당한 질타의 분별

본회퍼가 1929년 〈행위와 존재〉를 집필하여 독일 철학계 및 신학계의 인식적 자기중심성을 질타한 이유도 이러한 당대 독일의 사회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의 전신, 프로이센은 19세기 들어 유럽 계몽주의의 주도권을 잡은 나라로 급부상했다. 학문적으로는 칸트에서 헤겔로 이어지는 계몽주의 철학의 중흥기를 맞이한 데다, 정치·경제적으로는 호엔촐레른가 출신의 명민한 계몽군주들, 그리고 명재상 비스마르크의 지도 하에 유럽 대륙 내 신흥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런 근대적 발전은 독일인들의 민족적 자기중심성과 폐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



유대인들에 대한 악의적 오해 조장을 통해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히틀러와 그의 최측근 괴벨스. ©military.com 캡처

다. 원래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던 사람들이 국가 경영에서 커다란 성공을 맛보고 나니 자부심까지 더해져 더 기고만장해진 것이다.

본회퍼는 독일인들의 이런 민족적 자기중심성과 배타성을 인간 타락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진단했다.

교회사 전체를 보더라도 배타성과 악의적 오해는 기독교 신앙인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해온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다.

로마제국 당시 교회가 박해받은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제국 정권에 반역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예배를 위해 모일 때마다 갓난 아이를 죽여 찢어먹고(살과 피를 받아먹으라)는 주의 만찬의 명령에서 비롯된 오해) 집단 난교를 벌인다는(“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비롯된 오해) 오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오해는 대부분 로마제국 집권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기독교인들을 대규모로 박해할 때 지어낸 거짓말들이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보면, 로마 제국 당시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악의적 오해가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표적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근거가 빈약한 악의적 오해가 정권 지도부와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회자되는 상황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배척하는 폐쇄성에 불들린 이들이 흔히 범하는 어리석음의 또 다른 예를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무속, 유교, 불교, 그리고 한국 고유의 폐쇄적 민족 문화를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늘 이질적인 문화요소, 이방인들의 행습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방역을 강화하며 예배를 이어 나가려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악의적 오해와 음해의 최우선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오해와 음해에 대한 기독교계 일각의 잘못된 대응 방식이다. 순전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와 음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그친 적이 없었다.

다만 역사상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공격에 대해 인내와 겸손, 그리고 선행을 강화하여 진정한 승리를 얻어낸 것과 달리, 작금의 한국 교회 곳곳에서는 교회 스스로의 배타성과 폐쇄성, 그리고 선민의식을 강화하는 가운데 악에 대해 악으로 맞붙을 놓는 악수를 두고 있는 듯하다.

“정부 따위가 감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교회에 맞서느냐”는 식의 고압적 자세를 신앙으로 포장해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자극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교계 지도자급 인사 일부가 다분히 감정적인 어조로 정부의 예배 및 모임 규제를 지탄하고 멸시에 가까운 발언을 일삼는 모습은, 신앙의 인내와 지혜를 상실한 행태에 가깝게 보인다.

이런 고압적 행태가 교회에 대한 정부의 악의적 오해를 인내심을 가지고 불식시키려는 대다수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을 퇴색시키고 있는 듯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해 및 음해에 어리석게 대응하여 세간에 이를 정당한 질타로 비춰지게 만드는 상황을 한국교회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최근 교회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각종 비신앙적, 비윤리적 행각들 때문에 더 강화되고 있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적용해서 정인 양 학대치사 사건 같은

범죄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치적 공격으로만 치부하는 행태가 교계 전반에서 수용되는 한, 한국교회는 결단코 외부에서 가해지는 선동과 오해들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봐도 정당하다 할 만한, 홍악범죄에 대한 당연한 질타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다가, 그런 범죄가 교인들의 손에 의해 발생하기까지 신앙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무책임함을 비판받을 때에도 반성의 자세로 수용하기보다는 이를 교회에 대한 정치적 선동과 공격으로 몰아가는 적반하장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한국교회 일각의 현실이다.

이러한 한국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몰리는 음해에 대해 스스로를 변호하려 할 때, 그것도 고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로 스스로를 변호하려 할 때, 과연 그 변호내용에 공감할 수 있는 이가 교회 바깥에 존재할지 의심스럽다.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폐쇄적이다. 교회를 이방인 취급하는 정서가 지배적인 사회이다. 그런 가운데 인내와 선행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음해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배타성으로 맞대응하면서 교회 내부 반성을 촉구하는 정당한 질타에 대해서도 귀를 막아버리는 행태가 과연 세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본회퍼는 교회 바깥, 자기 중심성과 배타성의 원죄적 본성이 지배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곳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지만, 값싼 은혜에 심취되어 세속의 자기중심성과 배타성을 답습하는 교회 내부의 원죄적 행태 역시 강하게 지탄했다.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악의적 음해에는 신앙의 지혜와 인내를 발휘해 대응하며, 역시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정당한 질타에는 신앙의 양심을 발휘해 내부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의 전환이 뒤따라지 않는 한, 한국교회에 대한 세간의 따돌림과 오해는 결코 불식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박옥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로마제국 집권자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대규모 박해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악의적 오해를 부추기곤 했다. ©earlychristians.org 캡처



나치에 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의 현장, 아우슈비츠 수용소. ©britannica.com 캡처



양부모의 학대로 죽음에 이른 정인 양과 학대를 주도한 양모 장모씨.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들이 길러야 하는 능력 '공감'



공감하는 능력
로만 크르즈나릭 | 김병화 역
더퀘스트 | 360쪽

인간성의 정수이자 인간관계의 핵심, 공감
공감능력이 없다는 것은 21세기의 문맹이나 다름없다

자기중심적 경쟁에서 공감을 통한 협업으로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공감의 힘'에는 주목하되 '공감이 부재하는' 현실에서, '공감하는 능력'은 본질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가 꼭 갖춰야 할 특성이다.

인류는 삭막하고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공감이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시대>에서 "인류의 역사가 신앙의 시대와 이성의 시대를 거쳐 공감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동정과 공감은 차이가 있다. 동정은 상대방을 나의 입장과 생각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공감은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대로 이해해 주는 것이다.

동정은 결과에 이끌리지만, 공감은 과정에 충실하다. 동정은 상대방의 마음에 부끄러움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지만, 공감은 그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고 보듬어 준다.

21세기는 '공감의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 누구나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하다고 인식만 하고 있을 뿐 정작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로만 크르즈나릭의 <공감하는 능력>은 바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쓴 책이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됨의 핵심에 공감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 우선주의'라는 열망은 낡은 사고방식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데카르트 시대에, "내가 존재한다. 따라서 내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공감의 시대로 넘어가는 대이동의 길목에 서 있다.

공감의 시대에 공감의 중요성을 인지한 저자는 이런 물음 던졌다. "우리의 잠재적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저자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느라고 십수 년을 보냈다.

실험심리학에서 시작해 사회사, 인류학, 문학 연구까지, 또 정치학에서 두뇌과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진 공감에 관한 연구를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 분야를 개척해온 '공감 능력자'들의 생활에 관심을 쏟았다.

이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공감능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습관을 최대한 계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 6가지 습관을 이 책에서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기록하

고 있다. 6가지 습관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습관: 두뇌의 공감회로를 작동시킨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공감능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태어났는가 아니라, 그것을 개발할 의사가 얼마나 있으며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공감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적 재능을 갖고 나온듯한 사람들이 가끔 있다. 이들은 절대음감이 있고, 어떤 악기든 손에 들면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성도 학습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마흔다섯 살 난 사람도 열심히 연습한다면 멋드러지게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공감도 바로 이와 같다.

두 번째 습관: '상상력을 발휘해 도약' 한다

공감이 우리에게 그토록 좋은 것이라면서, 또 그것이 우리 두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우리는 왜 더 많이 공감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앞에 공감적 상상의 완전한 표현을 가로막는 네 가지 근본적인 사회적, 정치적 장벽이 서 있기 때문이다.

그 장벽의 이름은? 편견, 권위, 거리, 부인이다. 만일 그 장벽들을 넘어갈 생각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그 장벽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서는 걸 어떻게 가로막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지켜보면, 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그들의 비결은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의식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 도약하는 것이다.

세 번째 습관: 새로운 체험에 뛰어들다

메소드 연기는 공감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가진 주된 습관 가운데 하나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체험을 통한 공감이라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가까이 뛰어드는 습관 말이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되어보는 최선의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 그래서 자신의 피부와 심리에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개성의 융합(이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 신념, 감정의 한계 밖으로 나가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습관: 대화의기교를 연마한다

역사가 시어도어 젤딘은 "생각은 거대한 어둠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한다. 대화는 그 어둠을 꿰뚫을 수 있게 해준다. 대화는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연인, 낯선 사람, 적, 친구 등 인간이라는 우주의 마음 속으로 빛을 비춘다.

대화과 공감은 서로 밀접하게 엮여 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특별할 것이라곤 없던 대화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또 한편으로 대화 자체에는 공감에 토대를 둔 연결을 만드는 힘이 있다.

다섯 번째 습관: '안락의자 여행' 자'가 되어본다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말과 그림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고작해야 2차적인 경험밖에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저 '공감문학' 일 뿐이라고 소홀히 취급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책과 예술작품을 소비할 때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재미만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감하며 참여할 수 있을지 탐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것을 '안락의자 공감', 즉 자기 집 거실에 앉아 서도 해볼 수 있는 공감여행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습관: 주변에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사람들은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많이 입는다. 그러나 글귀 중에 '공감혁명'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도 공감이란 주로 사회와 정치의 근본적 변화보다는 개인들의 인간관계와 연관되는 개념이

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감을 사적 생활 영역에서 구해내 공적 생활도 바꿀 만한 잠재력을 발산시킬 때가 되었다. 이 일을 하려면 우리는 공감이 개인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현상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뭉쳐 상상속으로 도약해 타인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감은 역사의 지평을 바꾸어놓을 수 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공감의 미래는 각자의 삶을 바꾸기 위해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에만 달려 있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공감이 사회 변화를 위한 힘으로서의 혁명을 달성하기를 바라다면 더 깊은 곳에서 문화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공감 혁명을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첫째, 공감대화. 둘째, 공감도서관. 셋째, 공감박물관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겪어야 하는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다 아시기에 같이 아파해 주신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아시기에 함께 기뻐해주시고 즐거워해주신다. 같이 공감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해주셨던 것을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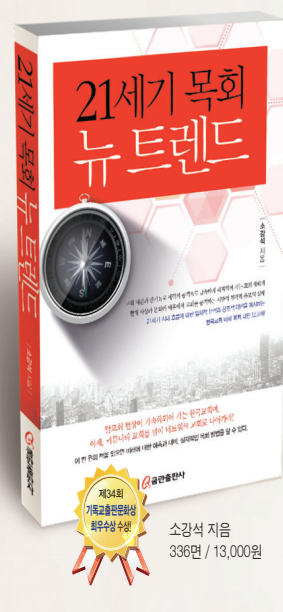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시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세례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야 할 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미션 푸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우수상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회 일직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원봉사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관리의 목장정신과 아름다운 순증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목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소강석 저음
336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교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척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신정호 목사



호남신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연세대학교연희신학대학원, 서남대학교, 동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미국 유신대학교에서 목회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전주노회장, 총회 군-농어촌 부흥, 해외목 사기, 총회 정책개발연구원, 세계선교부원, 총회사기, 호남신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 기독교보 눈살위원으로 봉사했다. 현재 전북 CBS 운영이사, 호남신학대학교 객원목사, 한남대학교 이사, 한국노회교회 회장, 전주동신교회 담임목사로 봉직하고 있다.

신정호 저음
380면 / 15,000원



HAPPY NEW YEAR SPECIAL SALE



NEW 2021 HYUNDAI ELANTRA SE

Lease **\$138** +Tax **or** **0 Down** **\$2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9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0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SONATA SE

Lease **\$158** +Tax **or** **0 Down** **\$23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954**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TUCSON SE

Lease **\$16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5,19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NEW 2021 HYUNDAI SANTA FE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8,43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0,000 MILES/YEAR.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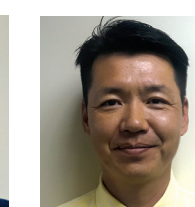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